

## 24년 8월 목회일정

|         |                                    |
|---------|------------------------------------|
| 18일(주일) | 성찬조별기도회<br>노회를 위한 당회               |
| 23-25일  | 연합수련회(김해개혁장로교회)<br>(창녕 온누리청소년 수련원) |
| 3-11월   | 신앙고백반 교육                           |
| 5일(월)   | 연합수련회 준비위(김해개혁장로교회당)               |
| 6일(화)   | 노회 임원회(샘터교회당)                      |
| 7일(수)   | 신대원신입생유치위(거제교회당)                   |

## 주간소식

|  |  |
|--|--|
| 환영합니다  |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br>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 1. 성찬예식  |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피시다.<br>[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 2. 오후예배헌금  |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
| 3. 연합수련회교역자모임  | / 5일(월) 18:30 김해개혁장로교회당  |
| 4. 목사동정  | / 1) 노회임원회 - 6일(화) 7:30 샘터교회당<br>2) 신대원 신학생유치위원회 - 7일(수) 11시 거제교회당 |
| 5. 신앙고백반교육   | / 입교반(김성재 이은수)   |
| 6. 가정(개인)기도회   |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br>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 * 8월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고충석 봉헌-김명순 안내-최진언   |  |
| <b>[김해개혁장로교회&amp;동래언약교회 연합수련회]</b><br>· 일시 : 2024년 8월 23~25일(2박 3일)<br>· 장소 : 창녕 온누리청소년수련원(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786)<br>· 주제 : 가정 & 교회(강사 : 2교회 교역자)<br>· 회비 : 장년-5만원 S.F.C-3만원 초등부-1만원<br>(입금 : 농협 302-0781-3983-81 / 구성본)   |  |
|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br>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  |
|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br>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br>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br>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br>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br>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br>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       |       |            |
|-------|-------|------------|
| 주일예배  | 오전    | 11:00      |
|       | 오후    | 15:00      |
| 주간기도회 | 아침기도  | 06:00(월-금) |
|       | 수요저녁  | 20:00      |
|       | 지역기도회 | 각지역결정      |
| 교회학교  | 금요독서회 | 20:00      |
|       | 유/SFC | 주 13:00    |
|       | 교회알기  | 주 13:30    |
|       | 청년회   | 주 14:00    |

## 이 달의 봉사자

|      |     |     |
|------|-----|-----|
|      | 8월  | 9월  |
| 교회소식 | 고충석 | 김영민 |
| 봉헌   | 김명순 | 이경준 |
| 안내   | 최진언 | 김유니 |

## 평균케 하는 원리

|    |                |
|----|----------------|
| 후원 |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
|    | 파서교회(고신,강인중)   |
| 선교 |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
| 구제 |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
|    | 곡성연합교회(최지혁)    |
| 장학 |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
|    |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08.04.(제28-31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 교회소식

##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 요4:23-24(교송)  
인도자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회 중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축복의인사 ↓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 찬송 4장(3-4)

##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 출20장(전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 제 1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 인도자  
\* 감사찬송 ↑ ..... 찬송10장(4-6)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  
성경봉독 ↓ ..... 롬 12: 1-2  
선포를위한찬송 ↑ ..... 찬송 15장  
설교 ↓ ..... 설교자

## 합당한 섬김

아멘송 ↑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4장(1a-1b) 구제헌금 분별 분잔  
목회기도 ↑ ..... 설교자

##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 찬송가 85장

## 폐회

\* 강복선언 ↓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   |   |
|---|---|
| <b>주일오후예배</b><br>교회소식<br><br><b>개 회</b><br>* 예배에로의부름 ↑ ..... 시73:28(교송)<br>인도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br><b>회 중:</b>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br>* 축 복 의 인 사 ↓ ..... 벨후1:2(인도자)<br>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br>* 경 배 찬 송 ↑ ..... 찬송가 4장<br><br><b>신앙고백</b><br>* 신 앙 고 백 ↓ ..... 니케아신경<br>* 감 사 찬 송 ↑ ..... 찬송23장(1-2b)<br><br><b>말씀봉사</b><br>설교를위한기도 ↑ ..... 인도자<br>성 경 봉 독 ↓ ..... 호3:1-5, 엡5:21-33<br>교 리 문 답 교 독 ↓ ..... 소교리70-72문답<br>선포를위한찬송 ↑ ..... 시편145편<br>설 교 ↓ ..... 설교자<br><br><b>제 칠 계명</b><br>아 멘 송 ↑ ..... 찬송가643장<br><br><b>자비사역</b><br>봉헌및봉헌찬송 ↑ ..... 시편128편<br><br><b>폐 회</b><br>* 강 복 선 언 ↓ ..... 설교자 | <b>주간기도회</b><br><b>아침기도회</b><br>월~금 6시(교회밴드)<br><b>에스라 묵상</b><br>인도 : 최성림 목사<br><br><b>수요기도회</b><br>수요일 20시(예배당)<br><b>[말씀·고백·삼]</b><br>인도 : 최성림 목사<br><br><b>지역기도회</b><br>인도 : 최성림 목사<br>* 동부(목, 10:30)<br>* 울산(화, 19:30)<br><br>인도 : 양주동 목사<br>* 김해(수, 19시)<br>* 특별(시간지역협의)<br><br><b>이야기성경</b><br><br><b>구 신</b><br>57. 사울왕을 돕는 다윗<br>58. 다윗과 골리앗<br>36. 빌라도 앞에서<br><br><b>주간성경읽기</b><br>주일 시146-148    눅19:1-27<br>월 시149-150    눅19:28-48<br>화 왕상 1-2    눅20:1-26<br>수 왕상 3-4    눅20:27-47<br>목 잠 1-2    눅21:1-19<br>금 잠 3-5    눅21:20-38<br>토 잠 6-7    눅22:1-38 |
|   |   |

|   |
|---|
| <b>주일설교를 기억하며(함당한 섬김)</b><br>1. 우리를 먼저 섬기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br>2. 공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섬김을 고백할 수 있기를<br>3. 모든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기를<br><b>파서교회(강인중 목사)</b><br>1. 예배와 주중 말씀사역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도록<br>2. 안정적인 예배를 위해 교회가 함께 회집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br>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br><b>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b><br>1.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br>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br>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br><b>예배와 제 모임을 위하여</b><br>1. 예배에 나아오기를 힘쓰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br>2. 매주일 모일 때마다 장차 오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교회되게<br>3.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
|---|

###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개혁정론 사설-수정)

이전 총회헌법(2011년판)은 아주 분명하게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36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과 헌법정신”을 언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금지하는 예는 없다. 고신 총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대로 실천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신총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정되어진 헌법은 정치제36조 2항에서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울 수 없다. 단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해서 만6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총회 헌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할 수 없다.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 차이다.

결국 이 법은 총회가 이해하는 성경과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지 않는 법이라는 말이다. 명예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헌법정신 자체가 변하거나 더 높은 권위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 성경과 헌법정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명예직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한 세워서는 안되는 것이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명예직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허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심지어 성경에 근거하여 변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리나 규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여성안수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명예직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직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감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명예직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개념과 상치된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명예직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직 허용은 직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직분이나 권위 자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명예직은 이와 같은 거부감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기존의 직분제도라도 제대로 헌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고신 총회가 가야 할 길이다. 명예직이 도입된 교회 중에는 시무 직분자보다 명예 직분자들이 더 많은 예도 있다. 명예직 허용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아웨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백성된 새 교회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남편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간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도와 원리를 좇아 살아간다면 간음입니다.

2.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소교리72 문답) 하나님께서 금하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순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 신부된 이스라엘은 ‘그 요구를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생각과 언행은 순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행하는 열심들은 순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내조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신랑의 뜻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대하여 마음과 언행에 순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맺은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온 삶을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곧 신앙생활 가운데 각종 우상숭배의 일은 다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언행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상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요. 남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음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금하십니다.(골3:6) 하나님과 우상숭배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고후6:14-16) 주님은 ‘모든 순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부를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정해진 몸과 마음을, 그 생각을 연단하여 다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돈 주고 값 주고 사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구원하여 내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실성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되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그리스도께 신실한 아내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8월 4일 주일오전]

|      |        |          |
|------|--------|----------|
| 신앙고백 | .....  | 사도신경     |
| 찬 송  | .....  | 찬 85장    |
| 성경봉독 | .....  | 롬 12:1-2 |
| 설 교  | 합당한 섬김 | 부모대독     |
| 기 도  | .....  | 부 모      |
| 주기도문 | .....  | 다 같 이    |

주제: “합당한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에서 기초합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합니다. 예배와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아가 우리의 섬김은 모든 일상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드러나는 “섬김”에 대해 살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영향이 신앙에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집힌 순서입니다. 원래 순서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이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예배에서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섬김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당한 섬김(“영적 예배”를 “합당한 섬김”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섬김

합당한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사역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축약한 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성도에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의”와 “화목”입니다. 먼저는 “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서는 법이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법에 익숙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법은 로마의 법과는 다른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대로 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여겨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정의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섬김은 “화목”입니다. “팍스 로마나”(로마의 평화)라는 말처럼 로마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지배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화목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와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섬김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섬김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사람의 신체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분만 섬긴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섬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섬김일 때에 참된 헌신이며, 합당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당한 섬김에는 세 가지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섬기거나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섬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뤄지기를 간구했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도 정말 기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섬김은 “거룩한” 섬김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의 중”(롬 6:19)과 “하나님의 중”(롬 6:22)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할 수 있는 건 내가 의로운 마음을 품고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의지하는 섬김이 “거룩한 섬김”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섬김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보통 제물이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고 생체활동을 하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요 11:25, 14:6).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명과 비교하곤 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꿈, 가족, 명예, 돈, 성적, 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으면 목숨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었다면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섬김과 헌신은 죽은 제물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고 땀흘렸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에 섬김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 8월 4일 주일오후]

|      |        |                  |
|------|--------|------------------|
| 신앙고백 | .....  | 사도신경             |
| 찬 송  | .....  | 찬 290장           |
| 성경봉독 | .....  | 호3:1-5, 엠5:21-33 |
| 설 교  | 제 칠 계명 | 부모대독             |
| 기 도  | .....  | 부 모              |
| 주기도문 | .....  | 다 같이             |

주제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신다”

일곱 번째 계명은 남녀의 성적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주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한 다루시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1. “일곱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일곱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소고리71문답)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순결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말,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말씀을 따라 사용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순결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일곱 번째 계명의 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자주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 2계명에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야웨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금송아지를 당신보다 더 섬기며, 사랑한 간음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보시고, 질투하셔서 그 간음한 자들을 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일곱 번째 계명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좇아 사는 모든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영육 간에 마음과 언행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언행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랑이신 야웨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과 간음했습니다.(사57:3,렘3:8) 호세아는 남편되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호세아는 남편인 자신을 떠나서 간음하는 고멜을 통해서, 야웨를 떠나 이방신들과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간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음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신부 이스라엘이 야웨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이시며, 자신들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죽여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였을 때 음녀 바벨론, 곧 음녀 예루살렘을 AD70년에 진멸하셨습니다.